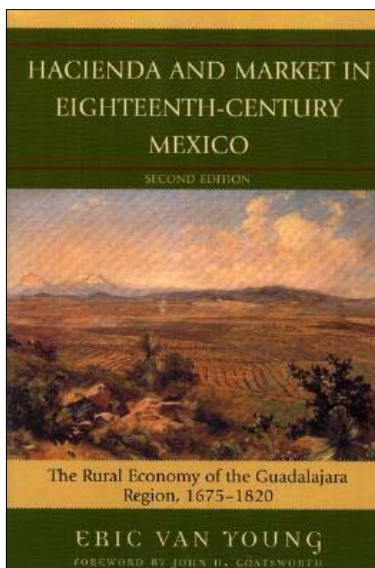




■ 에릭 반 영, 『18세기 멕시코의 아시엔다와 시장』

Eric van Young. 2006. *Hacienda and Market in Eighteenth-Century Mexico: The Rural Economy of the Guadalajara Region, 1675-1820* (2nd Edition). New York: Rowman Littlefield Publishers.

김 희 순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된 것은 1981년이며 2006년에 초판 발행 25주년 기념으로 2판이 출간되었다. 코츠워스(Coatsworth)가 2판에 대한 서문을 썼으며 저자도 2판에 관한 비교적 긴 서문을 덧붙였다. 저자인 영(Young)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UC San Diego)의 라틴아메리카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식민시기 및 독립시기의 누에바에스파냐, 멕시코의 농업 및 사회 등에 관하여 저술한 역사 전공의 멕시코 지역연구자이다. 코츠워스는 서문에서 이 책이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공부하는 학

생들에게는 필독서임을 강조하고, 초판의 출간 이후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회람되다가 2판이 다시 출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멕시코를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식민시기 토지제도를, 과달라하라라는 비교적 국지적인 스케일의 지역을 대상으로, 방대한 자료를 통하여 매우 상세하고도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아시엔다’라는 매우 촌락스러운 단어와 ‘과달라하라’라는 매우 도시스러운 단어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아시엔다가 멕시코 촌락의 경제 및 사회 제도를 상징하는 혹은 대표하는 시스템이라 할 때, 본 연구의 연구지역이 멕시코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를 중심으로 하는 할리스코 지역이라는 것은 연구지역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와 아시엔다 혹은 도시와 촌락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으로서 과달라하라와 농산물의 주요 공급지, 즉 배후지로서 뉴갈리시아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상품의 주요공급자로서 아시엔다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엔다의 경제적 연계범위가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중심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로 뉴갈리시아의 아시엔다들은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타 지역으로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이 자주 언급되기도 하였다.

과달라하라는 인구규모에서 멕시코 제2의 도시일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멕시코 중서부의 행정, 상업, 그리고 공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도시시스템이 갖는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높은 수위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적 지표면에서 멕시코시티에 비해 그 역할이 크게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에 대한 의존성 또한 높다. 이 책은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택함으로써 아시엔다와 도시와의 관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하부도시에서 멕시코시티를 조명함으로써 멕시코시티가 갖는 수위도시로서의 특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낼 수 있었다. 이는 지역연구에서 주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어떠한 ‘스케일’에서 ‘무엇을’ 통하여 설명하여야 하는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해외지역을 연구하는 동안 늘 따라다니는 스케일의 문제 혹은 중요성에 대한 답을 얼마간 주고 있다.

아시엔다는 크리오요 혹은 페닌슐라르가 소유한 자급자족 지향의 대농장, 즉 원주민 소농의 에히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아시엔다는 변화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특성을 지닌 제도, 즉 백인계 주인이 영속적으로 소유하며 ‘티엔다 데 라야’(Tienda de raya, ‘구내매점’이라는 뜻)를 통하여 농민을 토지에 종속시키는 매우 자족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멕시코의 도시시스템 발달지체의 원인으로 아시엔다의 자족적 성격과 농민에 대한 구속력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아시엔다에 관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시엔다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개개의 아시엔다에 관한 상세한 연구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일반적인 통설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1675년부터 1820년까지로 연구시기를 설정하였으나 본문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18세기, 즉 1700년대로, 이 시기를 멕시코의 농업부문에서 상업화가 시작된 시기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상업화와 맞추어 진행된 아시엔다의 가치상승과 소유관계의 안정화 현상은 아시엔다가 자족적인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시장 의존적 시스템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업화의 과정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이나 도시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농산물 공급체제의 결함으로 인한 농산물가

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식민시기 후반 원주민촌락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도시로 공급되던 에히도의 농산물의 양이 대폭 감소하고 원주민들이 농산물 대신 노동력을 도시에 공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원주민의 도시빈민화 과정의 시작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30쪽에 달하는 비교적 긴 재판 서문에서 초판의 발행 이후 이루어진 아시엔다에 관한 학계의 다양한 연구동향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신진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에 대한 충분한 조언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멕시코 농촌의 토지제도로서 아시엔다가 주로 거론되지만 그보다는 규모가 작은 농장인 란초(rancho)와 에히도(ejido)의 존재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소비시장으로서 과달라하라의 식량수급상황을 고찰한 부분이다. 저자는 아시엔다를 설명하기에 앞서 아시엔다의 주요 작물인 쇠고기, 밀, 옥수수의 시장공급과정의 체계와 변화상을 상세히 다루었다.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경제현상 및 행정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아시엔다 소유주들이 생산자로서뿐 아니라 소비시장을 통제하는 세력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과달라하라 식민정부는 도시의 주요 농산물 공급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규제를 가함으로써 가격 및 규모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시의회 및 시당국의 주요 정책결정자들인 아시엔다의 부재 소유주들의 불공정 행위 및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시장의 성장은 늦어지고 시민들은 비교적 높은 값에 저질의 농산물을 공급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농업 및 농촌의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공급자로서의 아시엔다와 소비자로서의 도시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깨뜨리는 주장이며 본 연구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은 아시엔다 자체의 변성과 쇠퇴에 관한 부분이다. 즉, 아시엔다 소유의 변화과정, 상업 및 광업과 아시엔다의 관계, 인구 및 노동시장과 아시엔다 등 당시 멕시코 사회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고 있다. 연구 전반에서 그러하지만 저자는 특히 이 부분에서 미세하다 싶을 정도로 아센다도(아시엔다 소유주) 개인에 대한 상세한 인적 사항 및 경제적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살피는가 하면 도시로 유입된 농산물의 양까지 매우 소상히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기록’들이 일반적인 학설의 설명보다 더욱 명료하게 각 부분에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자의 뛰어난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에 감탄할 따름이다.

저자는 또한 도시 및 광업을 통하여 자본을 확보한 크리오요들이 비교적 경제적 이익이 적은 아시엔다를 구입하는 과정 및 동기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다루면서 아센다도는 단순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농업 중심 사회의 지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동시에 타인으로부터의 존중 받는 존재이며, 식민시기 정치적 행보에서도 아시엔다의 소유주라는 이력은 매우 유용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아시엔다라는 ‘토지’ 제도가 식민사회에서 단순히 경제학적인 투입요소를 넘어선 그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지닌 것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